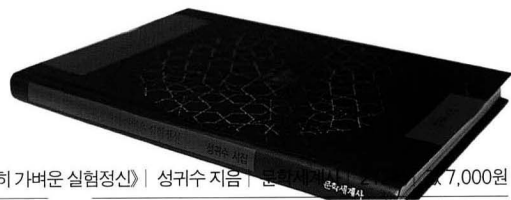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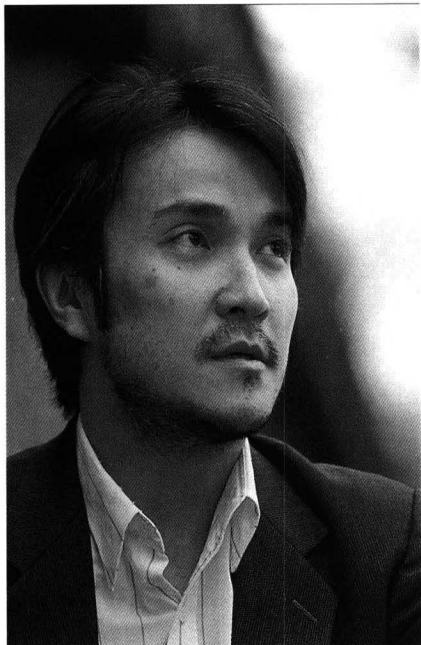


언어의 본질을 끝까지 찾아가는 도저한 실험정신



《정신의 무거운 실험과 무한히 가벼운 실험정신》 | 성귀수 지음 | 문학세계사 | 7,000원



“시 한편 한편이 언어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시쓰기는 언어의 본질을 찾기 위해 극단까지 밀고 올라가는 치열한 실험과 같은 것입니다.”

가스통 루르의 《오페라의 유령》, 《아르센 뤼팽 전집》 등을 번역한 전문 번역가 성귀수 씨가 등단 12년 만에 첫 시집을 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독특하고 낯선 시집이다. 활자가 타이프그래피처럼 자유분방하게 배열되어 있기도 하고 시행에 검은 띠가 둘러져 있기도 하다. 그래서 시집은 거대한 언어 실험 공간으로 다가온다.

“제가 좋아했던 시 전문지가 시운동 동인지였거든요. 그 동인지에 시를 신기 위해 동인 중 한 사람인 하재봉 씨를 찾아갔죠. 그의 도움으로 시운동 해체시집에 작품이 수록됐어요. 공식적인 첫 시발표였죠. 그리고 1991년 문학정신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정식으로 등단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시인은

아니지만 등단 이후 꾸준히 시를 발표해 왔다. 이번 시집에 실린 시들도 단 한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면을 통해 발표됐던 작품들이다. 문학세계사 대표이면서 시인이기도 한 김종해 사장은 데뷔 초부터 그의 시를 주목하고 시집 출간을 제의했다. 그가 밝히는 시집 출간의 감회는 감격적이다.

“시집을 묶는 것은 저에겐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시집을 내면 지금 생을 마쳐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저에게 시 쓰는 일은 제 삶에서 아주 중요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제 막 첫 시집을 상찬한 그의 본업은 번역이다. 그는 불문학 박사학위를 가진, 출판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번역가이다. 지금도 일상에서는 번역 원고 더미에 묻혀 산다. 그렇다면 번역과 시 쓰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 얼핏 보면 기상천외한 상상력과 규범을 깨뜨리는 어법, 광기를 드러낸 시와 번역가라는 직업이 어울릴 것 같지가 않다.

“번역 작업과 시 작업은 전혀 다릅니다. 번역은 이성적 작업의 산물이고 무엇보다 독자들을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하는 일이에요. 독자가 이해하고 요구하는 문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 쓰는 일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시적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언어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지요.”

제도권 시대에서는 아직도 그의 시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이다. 실제로 문예지에 시를 발표했을 때는 편집부로 항의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고 한

다. 그의 시는 관념적이고 난해해서 일반적인 소통과 교감의 가능성마저도 단아둔 것처럼 느껴진다.

“시가 과거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인 모순과 질곡을 고발하고 개선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또 시가 그런 데 쓰이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는 개념 자체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제가 쓰는 시가 시의 본질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본질을, 그 절대적인 존재 자체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의 정신의 구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시입니다.”

성 시인은 시인의 말에 ‘어떤 극심한 편식을 사용하여 이 풍부한 입체 속에 도사리고 있을 비틀림입방체의 도사리를 고정시킬까?’ 라고만 썼다. 난해하고 파괴적인 형식 실험은 ‘비틀림 입방체’라는 현실을 드러내는 은유와 같다. 이 세계를 정돈된 시로써 담아낼 방법은 없다는 뜻이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으로 자신의 정신적 구조를 건축학적 상상력으로 해명하는 장시를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시를 두고 흥정하거나 타협하지 않기. 그것이 시에 대한 그의 신앙이다. **문문**

취재 김도언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